강진, 노인맞춤돌봄센터와 어르신 생명 지키기 맞손

강진군보건소와 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가 지난 9일 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 교육실에서 지역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보건소의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해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돌봄 현장에서 발견되는 어르신의 우울감과 정서적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우울감 등 자살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해 돌봄과 마음건강 지원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한준호 강진군보건소장은 "어르신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라며 "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마음건강 지원이 함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또는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이어가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보건소와 강진노인맞춤돌봄센터가 어르신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 취약계층에 동절기 난방물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동절기를 맞아 한파에 취약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난방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가운데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례관리 과정에서 확인한 가구별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 등으로 겨울철 난방에 취약한 가구를 살피고, 대상자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물품 지원과 함께 대상자의 생활 상황을 살피는 등 정서적 지원도 병행했다.

김순정 사회복지과장은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공공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될 다회용 식기류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가 목포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공급과 세척 서비스를 지원하며 1회용품 감축과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다회용기 공급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사용한 용기는 전문 세척장에서 고온·고압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된다. 앞서 목포항구축제와 국가유산 야행 등 지역 행사에서 약 12만 6천 개의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했으며, 이번 사업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례식장까지 확대해 자원순환 실천 범위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어촌뉴딜 3.0 선정…국비 70억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10일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도 어촌뉴딜 3.0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70억원, 시비 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함평항 일원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어촌스테이션 조성 ▲생활 SOC 개선 ▲어항시설 정비 등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생활·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고 내년도 운용계획 심의

영암군이 지난 4일 제3차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7년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영암군 청년기금 조성 및 2026년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7년 영암군 청년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위원들은 청년기금을 활용한 사업 선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영암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을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윤재광 부군수는 "청년기금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함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청년의 정착과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2026년산 공공비축미 8,905톤 매입 추진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11월 9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약 4주간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 물량은 총 8,905톤으로, 일반벼 4,236톤, 친환경벼 3,885톤, 가루쌀 784톤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규모로,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이다.

매입은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매입 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매 직후 40kg 포대당 6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은 최종 매입 가격이 확정되는 연말에 정산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